

2018학년도 2학기 소식지



최지원 기자

**[9.12(수) 로스쿨 진학설명회]**

2018년 9월 12일 법학관 319호에서 장철준 교수의 로스쿨 진학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진학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로스쿨 선발기준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로스쿨 선발기준은 LEET, 학점, 공인영어시험이 합산되어 평가되며 그는 학점 관리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토익과 리트 준비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로스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법학 공부를 잘해 놓을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최지원 기자

**[9.18(화) 자랑스러운 동문 초청: 신태영 변호사]**

2018년 9월 18일 법학관 319호에서 우리 대학 동문인 신태영 변호사의 특강이 있었다. 신태영 변호사는 '재판은 왜 3심제인가?'가 라는 주제로 흥미롭게 강연을 이끌어 갔다. 끝으로 신태영 변호사는 충분한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토론 능력을 함양하고 지식의 견문을 넓힐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최지원 기자

**[9.19(수) BEST 법대 교수 행정법 특강]**

2018년 9월 19일 법학관 319호에서 김남철 교수의 행정법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은 행정법 공부 후 진로, 행정법 공부법, 로스쿨 준비 조언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행정은 스펙트럼이 넓어 모든 분야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진학을 희망한다면 리트 시험을 탄탄히 준비하고 면접과 자소서 또한 꼼꼼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하라는 답변을 마친 뒤,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최지원 기자

**[10.2(화) 선배와의 대화: 박조은 동문]**

2018년 10월 2일 법학관 319호에서 박조은 동문의 '자아실현과 진로선택'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자신의 진로선택과 취업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어 역무원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신이 택한 진로는 제한 경쟁이고 경쟁률도 낮지만, 법학과 학우들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며 법학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우들에게 추천한다고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최지원 기자



김병도 기자

**[10.10(수) BEST 법대 교수 헌법 특강]**

2018년 10월 10일 법학관 319호에서 한국외대 로스쿨의 문재완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강연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리로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였고, 헌법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헌법에 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전체적으로 헌법이 지니는 가치와 현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였다.

**[10.30(화) 대학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기법]**

2018년 10월 30일 법학관 319호에서 대학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주제로 김혜원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인포그래픽은 information+graphic의 합성어로 정보, 데이터, 지식 등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화한 자료를 뜻한다. 그는 인포그래픽을 사용하면 수용자가 정보를 시각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기억의 장기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을 가진 후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김병도 기자



김병도 기자

**[11.7(수)선배와의 대화 : 로스쿨 합격의 길]**

2018년 11월 7일 대학원동 319호에서 ‘선배와의 대화 : 로스쿨 합격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최원준 동문의 특강이 있었다.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서 학점, 토익, 리트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준비방식을 알려주었다. 자소서는 일관성 있게 작성하며 성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면접 준비과정에서 면접 스테디를 통해 정보를 얻으라고 하였다.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을 하며 특강이 마무리되었다.

**[11.06~09(화~금) 학회 학술제]**

2018년 11월 6일~9일 법과대학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통일의 함성, 형사법학회, 민사법학회, 법사회학회 순서대로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다. 통일의 함성은 <청춘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노래공연’을 하였다. 민중가요만이 아닌 다른 가요들을 부르며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형사법학회는 세월호 참사를 재구성하여 ‘모의재판’을 진행하였으며, 민사법학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주제로 ‘토론 형식의 연극’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사회학회에서 난민 문제를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형식으로 다루며 모든 학술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김현진 기자

**[11.13(화) 시사토론동아리 리걸인사이트 열린 간담회]**

2018년 11월 13일 법학관 318호에서, 학술제 기간을 맞이하여 법과대학 시사토론동아리인 리걸인사이트(지도교수 이동희)의 열린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동아리 활동의 중간보고 격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아리의 지나온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열린 간담의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 팟캐스트 '청년공방'의 런칭과정과 운영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김병도 기자

**[11.13(화) 진로선택 특강 : 법학 전공과 경제 분야 진출]**

2018년 11월 13일 대학원동 319호에서 '진로선택 특강 : 법학 전공과 경제 분야 진출'을 주제로 최종진 동문의 특강이 있었다. 사회진출에 있어서 법학과의 이점, 더 준비해야 할 점을 설명하였다. 법학과의 이점은 상법, 민법, 헌법, 국제법 등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기 때문에 협회, 공기업 등의 입사 시험과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법학 공부에만 매진하지 않고 기술적인 면모를 갖추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최종진 동문은 많은 조언을 하며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진 기자

**[11.14(수) 취업전략 특강]**

2018년 11월 14일 법학관 319호에서 '정부주도 민간위원회 취업전략'을 주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우인섭 과장의 강의를 있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현황과 공공기관의 채용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공공기업 취업준비방법으로 무분별한 자격증이나 대외활동을 하지 않고 직무가 요구하는 부분만을 준비하고 채용공고를 미리 확인할 것을 이야기했다. 자기소개서에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며 직무능력표준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것 강조했다. 마지막 질의응답을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 했다.



김현진 기자

**[11.21(수) 선배와의 대화: 진상호 동문]**

2018년 11월 21일 법학관 319호에서 '기업법무팀 취업전략'을 주제로 진상호동문의 취업전략 특강이 있었다. 기업법무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기업법무팀에 취업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라 말했다. 기업법무는 개인의뢰인과 로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비유로 기업법무의 자세에 대해 말했고 더욱이 기업과 기업의 문제,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하셨다.



김현진 기자

### [11.28(수)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초청 특강]

2018년 11월 28일 법학관 319호에서 강일원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은 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제시, 헌법재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요소로 전문 지식, 리걸마인드(법을 찾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를 말했다고 두 번째 요소는 인터넷, ai 등 새로운 도구 사용능력을 이야기했다. 세 번째 요소로 외국어 사용능력을 강조했다. 이후 그는 헌법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했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며 그는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병도 기자

### [1.02~03(수~목) 법과대학 워크숍]

2019년 1월 2일~3일 용인 한화 리조트에서 2018학년도 법과대학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법과대학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로스쿨 진학, 교육과정 개편, 법선재 활용의 측면에서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간에 유재현 학생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학생회장은 워크숍에서 '교수 간담회' '법과대학 주관 학술제' '캠퍼스 폴리스'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학점요건 등에 대한 법학과 학생들의 생각을 전하기도 하였다. 학생회장의 발표 후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며 법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림기자단 SNS 계정을 참조해주세요!**

**페이스북 : [Facebook.com/DKUPRESSCORPS](https://www.facebook.com/DKUPRESSCORPS)**

**인스타그램 : [dku\\_law\\_news](https://www.instagram.com/dku_law_news)**